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26℃/32℃

2017년 10월 17일 월요일 (음력 9월 17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907호



“국가인권위는 위험한 기관... 개헌 통한 헌법기구화 반대를”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서울법대 최대권 명예교수 강연



서울법대 최대권 명예교수

서울법대 명예교수인 최대권 교수가 지난 16일 저녁 서울대에서 열린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지금 이 개헌을 할 때냐?”고 비판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 논의와 맞물려 동성애·동성혼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먼저 최대권 교수는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교통 통제가 되지 않아 별의 별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구형 민원 집어넣듯, 이익단체들과 이념단체들이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뒤편가를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잡다한 민원사안 처리에 불과한 내용들을 헌법에 집어넣으려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이유로도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수술을 하자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개헌하자는 것이냐. 지금 바꾸자는 것이 헌법 차원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헌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자는 것인데, 그것이 헌법 잘못 때문인가? 더구나 정치인들은 자기 계파에 유리한 정부 형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금 국가 에너지를 개헌에 쏟을 때가 아니”라 말하고, 개헌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화 하려면 찬스를 주려는데,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동성애 동성혼을 헌법 차원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이유로도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 지점에서 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민주주의 발달 초기 단계라면 인권위 기관이 상당히 필요했을 런지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는가. 고소고발만 일본의 몇 배나 된다. 민소소송은 5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들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국가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로) 인권보호인데 왜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하고,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제도 존재 이유가 인권옹호이다. 변호사 제도를 국가가 두고 있는데 왜 인권위가 필요한가. 더군다나 형사소송의 국선변호제도나 민사소송의 법률구

조공단 등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겠느냐”고도 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인권위가 권고, 교육, 의견제시, 조정, 해의기관 협력 등 다기능적인 일을 하는데, 이것이 헌법기관화 된다면 권력 분립, 견제, 통제 등의 무엇인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인권위원들을 중립적으로 일하게 하는 장치가 없다”고 말하고, “한쪽 편향이 되어도 중립으로 만드는 장치가 없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라 했다.

더 나아가 최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국내 동성애 동성혼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념적으로 진보 쪽에 서 있는데, 이것이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 교수는 개헌 내용 가운데 ‘양성평등→성평등’ 표현 변경과 ‘성적지향’ 등의 개념이 은연 중 내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도 표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반대하는 것이 개헌 내용 가운데 이러한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되는 것을 막는 첩경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들은 헌법을 신성시해서 쉽사리 고치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권은 국가가 만든 권리가 아닌, 국가 이전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자연권인데, 이미 주어진, 날 때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이라며 “동성애 동성혼이 천부적인 것이냐. 개헌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데 헌법을 통해서라도 아예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라 지적

했다.

때문에 개헌 내용에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최 교수는 “동성애가 정신병 일종이냐, 타고난 것이냐 등의 논란은 분분하겠지만, 초국가적인, 전국가적인, 초월적인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라 했다. 또 그는 “헌법9조에 ‘전통문화 창달’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동성애 동성혼이 전통문화냐”고도 지적하고, “가치가 긍정적인 아니라면 전통문화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개헌하는 이들은 헌법 제9조도 손을 보려 하더라”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군동성에 합리화도 반대하고, 동성애는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정책과도 반한다면서 “이런 동성애 동성혼 등을 굳이 개헌에 넣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관계한 헌법교수를 어느 세미나에서 만났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있다 길래 ‘당신 아들이 동성애를 한다면 어찌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하더라.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동성애 하는 것은 동의 못하고, 다른 자식 동성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

최 교수는 이런 것이 학문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라며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그것이 인격자이다. 자기 자식에게 추천할 수 없는 것을 남의 자식은 괜찮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자신 있는가. 나는 자신 없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조은식 기자

“하나 됨, 쉽지 않다”

한교연은 최근 중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기연과 한기총에 대한 몇 가지 결의사항을 도출해 냈다.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하나 됨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교연 제공

한교연, 한기연에 “정관 합의 못하면 통합은 파기”

최근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 통한 결의 사항 공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중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회연합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결의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교연은 자신들의 결의 내용을 지난 16일 교단장회의 대표 3인(이성희 김선규 전명규 목사)에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한기연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한교연 측이 밝힌 결의 내용 전문이다.

1. 본회는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창립총회(2017.08.16.)를 개최하였으나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하였다. 따라서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기연 총회를 위한 정관을 합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단장회의 3인, 본회 3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정관을 합의 확정하고, 이를 6인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토록 한다.

3.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재를 득해 공문을 발송하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현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한기연은 본회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본회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되며, 한교연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들 중에 교단장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교단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본회는 12월 5일 예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 총회를 개최하고 폐회할 때까지 존속한다.

5. 한기총에서 요청한 교단장총회에배 공동개회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한기연의 10월 20일 행사에도 공식 참여하지 아니한다.

6. 본회와 교단장회의의 양측 각 3인(한교연 : 고시영 황인찬 석광근, 교단장회의 : 이성희 김선규 전명규)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본회 회원교단은 10월 30일까지 본회에 분담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미납할 경우 한기연 가입을 보류기로 한 결의를 재차 주지토록 한다.

7. 국민일보 보도에 한기연 실무자가 한교연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 한기연은 한교연의 법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 청산이 아니다. 따라서 한기연 실무자가 한교연 청산 운운하는 것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난 6회기동안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주도해 온 본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례한 망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양측 통합에 저해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본회는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실천함에 있어 통합과정을 통해 확장될지언정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재발될 시 모든 책임은 교단장회의측이 져야 할 것임을 밝혀드린다.)

박용국 기자

해먼드 메리놀 선교회 신부, “美의 北여행 불허해도 방북”

1995년부터 북한을 약 52차례 방문한 제리 해먼드 신부는 미국 정부의 자국민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한 달 전 정식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초 또 다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함제도’라는 한국 이름으로 사목활동을 해 온 메리놀 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인 해먼드 신부는 지난달 국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월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BBC방송에 말했다.

함 신부는 “국무부에서 답변을 듣지 못하면, 가도 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약 국무부에서 내가 북한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가지 말라고 통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못하면 그냥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신부는 해마다 5월과 11월에 북한을 방문한다. 올해 84살인 그는 “이제 남은 인생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자면 나는 천주교 신부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나에게 비자를 줄 필요는 없는데,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면 그렇지 않겠느냐”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함 신부는 대북지원 비정부기구인 유진 벨재단과 함께 북한내 다체대성 결핵 환자를 돕고 있다. 유진 벨은 매년 두 번 2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 6개월씩 결핵 약품과 식료품을 전달한다.

지난달 1일부터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방북이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또는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여권이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 다음달 7일 방한 “文대통령과 정상회담·국회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 군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오

늘(1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국회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기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구그이 소리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은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

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다음 달 첫 한국 방문 시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할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치 매킨(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한 시 DMZ 방문은 도발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최악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 세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방문 계획을 거론하면서 “나는 그 모두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제목: 김치선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발제

들 어 가 는
말

예수님께서
는 우리를 회
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
으셨고 부활
하셨고 그리
고 승천하였
습니다. 그래
서 주님께서



한복협 중앙위원, 한국중
앙교회 임석순 목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회
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마
4:17) 회개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왕과 주인삼
아 세상만을 바라보며 놓지 못하던 삶에
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
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이렇게 돌아서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루하지 못하고 실패하신 것일까요? 아닙
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실패
하신 적도 없고 실패하실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주
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70인을 그
리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선 자
가 된 우리를 통해 아직 돌아서지 못한
자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계속 하시고
싶은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는 이미 회개한 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
습니다.

즉 돌아선 자, 회개한자들은 자랑스러
운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
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졌으니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담
대히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부
활생명의 증거
를 받았기 때
문입니다. 약
속된 것을 바
라보았기 때
문입니다. 모
세 역시 영원
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
기에 약속만
을 믿고 이스

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
안에서의 삶의 여정을 이겨냈습니다. 우
리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세상이 감당
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모세
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약
속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을
불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인
생을 소망할 뿐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과 묶여져 이미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
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
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뱀으로 가
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
단이 어느 곳이나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
니다. 이 세상에 보냄 받은 사람들 중에
도 뱀을 대하는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어
떤 이는 뱀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물려
서 죽습니다. 어떤 이는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뱀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어
딜 가나 뱀이 있기 때문에 삶이 무척 힘
듭니다. 어떤 이는 뱀을 잡아 들고 밟고
다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뱀에
게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이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
지 않습니다.(막16:16-18) 이것이 바로 회
개한 자, 하나님과 영원히 묶여 있는 자.
큰 복을 받은 사람들로 회개의 영이 충
만한 자들입니다.

한국의 한 시대에 회개의영으로 충만
했던 김치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께서 쓰신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회고
하며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확인하는 일
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신
앙의 영웅을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
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고 정
작 지금 나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요구하
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말씀에 대
한 온전한 순종을 떠날기는 자기합리화
의 작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
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영적 실
상을 직나라라게 직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
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택하
고 변화시키고 세워 가시는 아버지 하
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오래 참으
심,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애가운데 성취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게 됩니
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유익을 줍니
다(히 12:1-2). 즉,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
셨고 이끌어 가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용기를
주며 말씀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에레미아’로 알려진
‘김치선 목사님’의 발자취를 통해 이미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 신학적 사상이나 설
교의 내용들에 대한 회고 보다는 하나님
께서 한국 교회에 김치선 목사님을 통하
여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역하신 그
이들을 소개하며 다시 한번 그 회개의 영
이 부어 주시기를 소망해봅니다.

1.출생과 성장

● 고봉 김치선(高峯 金致善, 1899~
1968) 목사는 1899년 음력 8월 10일 함
경남도 서호진에서 부친 김영준씨와 모
친 최연숙의 3남2녀의 장남으로 태어났
다. 고기잡이배 40여 척을 거느린 부호의
집안이었으나 1913년 폭풍으로 모든 배
를 잃자 아버지인 김영준은 가족들을 이
끌고 장진으로 이거하여 그곳에서 화전민
생활을 하게 된다. 어린 김치선의 영특함
을 알고 있었던 김치선의 시구 선생 김을
보 웅이 자신이 치선을 키우겠다고 하여
김치선만 서호리에 남게된다.

● 이 시기에 캐나다 연합교회에 합류
하지 않았던 전류와 장로교회의 선교사
로 개혁신주의신학자였던 영재형(榮在馨,
Lither Lisger Young, ?-1949) 선교사
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으로 함
흥에 와 있다가 서호리를 방문하여 김치

선과 만나게 되고 김을보 웅의 추천으로
김치선을 함흥 발흥산 기슭에 있는 자신
의 집에 데리고 가서 사환 일을 시키며
공부하게 했다

● 1919년 김치선 목사의 아버지 김영
준 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재형 선교사
는 즉시 함흥 신상리에 집을 마련하고 김
치선의 가족들을 그 곳으로 이주시킨 후
그들의 생활비를 대 주었다. 하지만 김
치선은 영생중학교에 다니면서 3.1운동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체포되어 심한 매질
과 고문을 당하며 20살의 나이로 함흥에
서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어 그곳에
서 1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된다.

● 서대문형무소에서 그는 인생의 문제
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였다.

● 1년 후 김치선은 출옥하여 함흥으로
돌아와 영생중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1922년 3월 13일 23세의 나이로 영생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연희전문
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때 김치선은 학기
중에는 서울 연희전문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방학이 되어야 함흥으로 돌
아와서 영재형 선교사의 일을 도왔다.

●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하여
함흥의 집으로 돌아와 있던 중 불길 속
에 갇힌 영재형 선교사를 목숨을 걸고 구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영재형 선교사
는 이 일 후에 김치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더욱 특별히 사랑하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 영재형 박사
는 후일 회고를 통해 “내가 한국에서 얻
은 유일한 소득은 김치선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 1925년 휴양 차 캐나다로 일시 귀국
하였던 영재형 선교사는 캐나다 연합 교
회 선교부 소속인 스코트(Scot) 선교사
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먼저 자
신의 양아들이 된 김치선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여 함경도 서호리 서당에서 김치선
과 같이 공부하였으며 영생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함께 공부하였던 사이였고 당시
송실전문학교 교수이며 모란 잉크와 금
광 비누 공장의 사장이었던 이용구 씨의
딸 이흥순과 결혼시켰다.

2. 신학공부

● 결혼한 김치선은 1927년 3월 7일
에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평양
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하

지만 1928년 일본에 있는 한인들을 선교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영재형 선
교사의 부름으로 일본으로 건너갔고 고
베 현에 있는 고베중앙신학교(現, 개혁신
학교)에 편입해서, 그곳에서 영재형 선
교사를 도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본격적
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일본에 건너 온지
2년만인 1930년 2월 23일, 김치선은 31세
의 나이로 고베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영
재형 선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 안
수를 받았다.

● 고베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를 받은 김치선은 그 다음 해인 1931년
영재형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필라델
피아에 있는 웨스터민스터신학교 Th. M.
과정 에 입학하게 되고 1933년 Th. M.학
위를 취득한 김치선은 다시 텍사스주 달
라스에 있는 달라스신학교의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으며, 여기서 구약학을 전공하
여 1935년에 신학박사 학위(Th. D.)를 취
득하였다.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정식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었다.

3. 일본에서의 목회 및 선교 활동

● 1935년 미국 달라스신학교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김치선 목사
는 한국에서는 특히 교회와 기독교인들
을 대상으로 신사참배 강요가 극에 달하
고 있던 것을 보며 자신도 이와 같은 우
상숭배에 대한 강요를 피할 수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여 곧 바로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양아버지 영재형 선교사가 시무하
고 있는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 영재형 선교사가 머물고 있었던 고
베에서 자리를 잡은 김치선 목사는 고베
중앙교회(神戸中央教會)를 개척하고 본격
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열정적인 설교로 인하여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였고 김치선 목사는 교인들에게
모두 주일마다 한복을 입고 교회에 나오
게 함으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
심을 일깨워 주었다.

● 고베중앙교회에서의 목회를 통해 알
려지게 된 김치선 목사는 1938년 봄 일본
의 수도 동경에 있는 신숙중앙교회의 청
빙을 받고 그곳으로 옮겨가서 목회를 하
게 되고 소문이 퍼지자 동경에 있는 한
국 사람들과 한국에서 유학 온 많은 학
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일본전역에서
한인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
게 되었다. 김치선 목사는 이 교회에서도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한국인으로서 긍지
를 가질 것을 역설했다.

● 1938년 당시 한국에서 송실전문학
교와 평양장로회신학교 등이 신사 참배
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교를 당하는 등
한국인들에게 대한 일본인들의 신사참배
강요가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한국 개혁
주의 신학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박
형룡 박사는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중국
으로 피신하였다가 그 곳보다는 일본이
더욱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으로
피신하기로 하여 김치선 목사에게 거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하였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김치선 목사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몇 집 건너에 집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박
형룡 박사의 가정을 안내했다. 이 때로부
터 김치선 목사는 일본을 떠나기 전까지
박형룡 박사와 한 집안 식구처럼 가까이
지냈다.

● 1940년경, 일본인들이 내선일체라
하여 교회에서 일본어로 설교할 것을 강
요하였던 시기에 동경신숙중앙교회에
서 목회와 선교 사업을 하며 특히 한국
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였던 김치선 목사
는 일본인들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찍힐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상범으로 구속 연
행되어 신숙 경찰서에 수감되고 수개월
이 지난 후에 풀려났다. 이 일이 있은 이
후 김치선 목사는 동경신숙중앙교회에서
의 사역에 대한 커다란 회의와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곳에 나와 있는 한
동포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된 자들 간에 물고 뜯는 교회라는 점에
서 그랬고, 또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까
지 감시 받아야만 하는 점에서 그랬다.

● 김치선 목사는 자신의 자리를 탐내
는 자들에게 교회를 양보하고 동경신숙
중앙교회에 있으면서 개척하였던 대구로
(巨黒)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다. 이
때 박형룡 박사도 김치선 목사가 목회하
는 대구로 교회에 출석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설
교하였다.

● 1944년 일본 패망의 가까워 옴을
직감한 김치선 목사는 그의 양부였던 영
재형 선교사가 이미 일본에 의해 강제 출
국 당한 상황에서 귀국할 것을 결심하고
1944년 3월, 45세가 된 김치선 목사는 가
족들을 이끌고 여수에 도착했고 그의 장
인이 마련해 준 집이 있는 함경도 왕장으
로 향했다.

월드비전 지구촌 마이키즈 후원 캠페인

My KIDS

가장 중요한 게가 없으니, 나눌 것은 다기를 Facebook에 올리주세요

마이키즈는 월드비전 후원 캠페인입니다

마이키즈를 통해

Facebook에 올리면

월드비전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캠페인 참여방법!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웹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v.or.kr

3 캠페인 후원금 1000원 이상을 후원해주세요.

1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후원 캠페인 기간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후원금 1000원 이상을 후원하면 선물로 보내거나 아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후원금 1000원 이상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3 후원 1회 이상은 후원금 1000원 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 후원 방법

1 후원금 1000원 이상을 후원하면 후원금 1000원 이상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후원금 1000원 이상을 후원하면 후원금 1000원 이상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4. 한국에서의 목회 및 교육 활동

1) 남대문 교회와 대한신학교

●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선 목사의 장남인 김세진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어 슬픔 가운데 있던 김치선 목사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구내에 있던 남대문 교회로부터 정식 청빙을 받게 되어 1944년 남대문교회 제 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다.

● 김치선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한 뒤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944년 일제강점령 막바지의 위험한 상황에서 서울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기도회를 쉬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었고 김치선 목사는 그 압답하고 어수선했던 시기에 매일 새벽제단을 쌓으며 강단에서 영드려 민족을 위하여 한 없이 울었다고 한다.

● 이처럼 열심 있는 기도와 은혜로운 설교로 인하여 남대문 교회는 점점 그 교세가 확장되었고 마침내 남한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 당시 남대문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회가 서울역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 다니러 오는 나그네들이나 남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국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

●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이 광복과 더불어 김치선 목사는 이제껏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민족의 복음화의 열정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다.

● 바로 이 때부터 그가 전개한 운동이 3천만의 십일조 3백만을 하나님께 바치는 운동이었다. 그는 매 설교 시마다 “한국에는 2만 8천의 자연부락이 있

소, 동리마다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성도들이 집집마다 감나무 한 구루씩 심어서 그 수입을 몽땅 선교비에 투자한다면 민족복음화는 물론 세계를 복음으로 덮으리이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부터 그를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예레미야’라고 불렀다.

● 김치선 목사가 이처럼 전개한 삼백만 전도운동으로 인해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70여명 이상의 목사가 참여하는 삼백만 부흥전도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 2만 8천 동네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70여명의 목사가 선교목사로 전국에 파송되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공산 게릴라들의 잦은 출몰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까지도 거침없이 가서 전도를 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대한신학교(現, 안양대학교)’가 ‘장로교 야간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남대문 교회당에서 개교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김선두 목사, 윤필성 목사를 비롯한 몇몇 유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하였는데 초대 교장에 평양 여자 신학교 교장을 지낸 윤필성 목사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서울 서소문구(현 중앙일보사 근처)에 건물을 얻어 신학교를 이전한 후 김치선 목사 자신이 친히 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1950년 1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大韓神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김치선 목사가 이처럼 대한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먼저, 그가 전개하고 있던 삼백만 부흥전도운동의 일환이었으며, 또한 그가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목회자를 배출함으로써 그가 추진하고 있던 삼백만 전도사업을 조속히 완수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를 완전히 복음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2) 6.25 동안

1950년 5월 24일, 대한신학교가 드디어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은 남자만 18명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25일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김치선 목사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일상에 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교인들보다 먼저 몸을 피함으로써,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연맹에 가입하면 예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공산주의의 실체와 기독교 연맹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다.

6.25동안 기간 동안 김치선 목사는 부산과 대구, 두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고 1951년 9월, 대구에서 총회신학교가 개교하였을 때 교수로 추대를 받고 대구로 옮겨가 생활하게 된다. 피난 시절 대한신학교는 부산과 제주에 분교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분교장으로는 윤필성, 이환수 목사가 각각 임명되었고 얼마 후 부산중앙교회의 노진현 목사가 부산분교의 분교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1952년 9월에 문교부로부터 4년제 신학교 인가를 받게 되자 김치선 목사는 인가 된 대한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자 1953년 9월에는 부산분교와 제주분교를 서울로 복귀시켰다.

3) 창동교회

● 1953년 말에 서울로 돌아 온 김치선 목사는 서울 남창동 10번지에 창동교회

설교

를 개척하고 시무하게 된다. 이는 김치선 목사가 전쟁 기간 동안 내내 장로회 총회 신학교 교수로 제직하면서 대구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남대문교회에서는 사실상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치선 목사는 이곳에서 시무 하면서 대한신학교를 운영하였고, 또한 총회신학교에도 계속해서 출강하였다.

맺는 말

1. ‘한국의 예레미야’로 불린 고봉高峰 김치선(1899-1968) 민족을 사랑하며 구령의 열정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목사, 신학자, 교육자였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라는 이 한마디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복음의 관점에서 사랑했던 ‘애국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2. 김치선 목사는 장로교회 제1세대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와 신학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 유학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 후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고베중앙교회, 신주쿠중앙교회, 도쿄 메구로교회, 남대문교회, 창동교회, 청라중앙교회 등에서 목회했으며, 1944년에 귀국하여 1948년에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설립했고, 1961년에는 대진교단의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도, 그는 목회를 쉬지 않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도와 전도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의 재건과 쇄신을 위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방 후 그는 전도운동 및 구령敎團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재건을 추진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 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신학 박사였음에도 신학의 학문성보다 신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복음전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에 서서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 신학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한국의 예레미야’ 김치선의 민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1944년 남대문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한 기도와 회개, 그리고 전도운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해방 후 혼란한 정국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민족이 살길은 오직 기도, 회개 그리고 전도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으로 300만 구령운동을 조직화하였는데 해방 당시 기독교 인구가 30만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펼친 300만 구령운동은 이 땅의 복음화에 쏟은 그의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300만 구령운동을 지속하면서 그는 신학도들에게 “2만 8,000여 우물을 파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할 일은 이 우물 파는 사업이다”라고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겼습니다. 신학도들이 다른 것을 그만두고 일생 우물만 파는 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300만 구령운동, 2만 8,000 동네에 우물을 파라는 그의 열정은 이 땅과 민족을 위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근본이 단순히 조국의 부강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열망은 그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이 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영이 오늘 날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이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하여 구령사역으로 이어가는 회개의 영이 이 땅에 다시 부어지

회개의 영이 임해야

원한 자욕으로 가게 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기독교교도소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죄수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음해를 받아 교도소에 온 것이다.’라며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에서 해주는 일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만 잘 통과하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이 거의 없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하며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저희 교도소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하여 모든 교정관들이 죄수들과 함

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 해주셨지요. 반면 사울왕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나라와 가정이 다 망했습니다.

또 목사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은 베드로와 배반자가 된 가롯유다를 비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용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롯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방지일 목사님의 목사님의 집에 10년 정도를 다니면서 성경공부도 하고 말씀도 자주 들었습니다. 방지일목사님께서 늘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늘 말씀하시며 피의 복음, 회개와 죄사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시니 회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개인과 나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

계 밥을 먹습니다. 과거에는 죄수들이 무슨 해꼬지를 할 줄 모르니까 불안해서 같이 밥을 먹지 못했는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아무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의 영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등에 업혀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자 그제서야 자신

기를 기도합니다.

■ 대한신학교의 특성

(1) 대한신학교가 처음부터 야간신학교로 출발하였다.

이는 북에서 내려 온 사람들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낮에 일하지 않고는 생계를 이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치선 박사는 이들로 하여금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신학교를 야간 신학교로 운영하였다.

(2) 이 학교가 처음부터 지적인 추구보다는,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였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들 역시 고차원적인 학문성을 추구하는 과목보다는 복음전도와 성도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과목들이었다. 고차원적인 신학 교육보다는 순수한 성경공부와 전도운동을 위주로 교과가 편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영농법과 침술법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이 학교가 초 교파적이었다.

학교 설립 초기부터 이 학교의 강사진이 장로교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변홍규 박사를 비롯한 다수의 타교단 출신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초교파적인 학교로 시작한 데에는 300만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학교였기에 3천만의 십일조 300만 구령운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초교파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시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되어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하였으나 김치선 박사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민족의 복음화에 있었기에 복음전도를 위하여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초 교파적이었던 것이다.

글=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제공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경건회 설교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시고 회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양을 바쳤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평생동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회



한복협 중앙위원, 명성교회 김삼한 원로목사

개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하였다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자가 우편의 죄수는 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범죄자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발아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해서 망했습니다.

30년 전 즈음 저희 교회를 다녔던 김광현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단 하나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었는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 차별 철폐운동과 그 영향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II)

III.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유사 종교 운동

1. 사회적 성으로 구성된 사회 지향



기독교학술원장·살롱나비 대표 김영현 박사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동등권을 요구했지만, 1990년 초 이래로 “제3의 물결”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능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개하는 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 구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차별”이라는 용어를 빌려와 성 주류화 운동을 성 차별 철폐운동으로 부치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남녀 성차별을 방지하지는 운동으로 알지만 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구별 자체를 철폐하고 모든 남녀의 성적 동일성을 주장해 되었다.

그리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사종교(eine Quasi-Religion)로서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유사 종교란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지니는 성격, “독선적 타당성 주장, 절대성 주장, 총체성 기대, 인간 삶의 종교적 의식(출생례, 청년례, 혼인례, 장례)”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그 예는 모택동주의, 국가사회주의, 일본 공국주의 등 전체주의 운동, 현대스포츠 등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의 성 차별 철폐운동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 부일체제라는 결혼 제도에 대항하여, 레스비안적(Lesbian), 게이적(Gay), 양성애적(Bisexual), 성전환적(Transgender), 퀴어적(Queer), 혼음적 행태가 “성적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 공동체로 애국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성차별 철폐운동이 유사종교라는 규정하는 것은 예전에는 숨어 있었으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coming out) “성적 지향”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가이드라인에 슬그머니 넣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 할 뿐 아니라 이성애자들을 역차별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퀴어축제로서 이 동성애를 전 국민에게 과급시키려는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 속 예는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이 숨어 있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를

는 양성(性) 사이에 존재하는 창조주의 이원적 상호성과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로서 갖는 의무와 역할을 완전히 폐지,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성(social sex)으로 구성되는 왜곡된 인위적인 세계관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의 다양성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추구한다. 이 운동은 거대한 호칭, 젠더(gender)의 일률성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질서로 지어진 생물학적 성의 모든 차이들을 해체하고자 시도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성으로 구성되는 세계관에 기초한 인위적인 성 사회로 바꾸고자 한다. 심지어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선구자적인 도구로써, “중성적인” 언어(지구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친숙한 언어인 아빠, 엄마를 인위적인 조립어 양친 1, 양친 2로 대체)를 만들고자 한다.

예컨대, 스웨덴의 두 유치원(Nicolaigarden and Egalia gender-neutral preschools)은 성 개념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교육을 지향해 왔다. 두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성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교육한다. 유치원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타고난 성에 따라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특정 행동을 금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여아”(girl)와 “남아”(boy)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신 이름이나 성-중립적인 대명사 “hen”을 사용하여 부르도록 했다. 스웨덴에서는 1988년 수정헌법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성-고정관념화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한다. 이에 더해 Egalia의 교육방침은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성평등 관념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한다.(CNN 기사)“girl”과 “boy”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한 유치원: 성별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을 말소하려는 스웨덴의 성-중립 유치원 <http://edition.cnn.com/2017/09/28/health/sweden-gender-neutral-preschool/index.html>)

그러나 이러한 성-중립적 교육방침은 아동기에 일종의 주입식 세뇌 brainwash 효과를 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웨덴의 심리학자이며 저술자인 에버하드(David Eberhard)는 CNN에 다음 같이 비판한다: “이러한 교육(소년들과 소녀들을 hen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아동을 지적으로 부정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부정하는 일종의 종교적 이단종파이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작동하는 일종의 세뇌와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다니게 되면 이전에 일종의 종파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남자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boy’나 ‘girl’을 구분하여 부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에버하드의 성-중립적 교육 비판이 정당하다고 본다.

2. 음란 전염병(음란 동영상, 영화, 서적 등으로) 퍼뜨리기는 성혁명의 전략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의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 직장, 가정, 교회에 이르기까지 음란물(pornography)을 전염병(epidemics)으로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추진하는 활동 엔진으로써 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교도 국가였던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아래서 2015년 6월 26일에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선언되어 21번째 동성애 허용 국가가 되었고, (동성애)혐오범죄법(Hate Crime Law)이 시행되어 세속국가 되었다.

현재 뉴욕 타임스의 책임부 편집인인 미국 예류 작가 파멜라 폴(Pamela Paul)은 2010년의 그녀의 저서에서 다음같이 음란물의 전염병적인 범람에 관하여 썼다: “오늘날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8억 개의 음란 비디오(video)와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를 빌려보고 있으며(빌린 영화의 1/5이 음란물이다).”(Pamela Paul, “From Pornography to Porno to Porn: How Porn Became the Norm,” in: The Social Costs of Pornography: A Collection of Papers (Princeton, NJ: Witherspoon Institute, 2010)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에서 2014년 7월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총인구의 3퍼센트가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인식하고 있다.” 컬럼은 “이런 현상은 연애오라물을 통해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게이와 레즈비언이 노출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 일상생활 속으로 젖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 황금시간대의 많은 프로그램들에 동성애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수십년 전 음란물은 미디어, 비디오, 성인 영화에 제한되어 오로지 성인들에 의해 소비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포르노 비디오, 섹스 대화, 웹캠 섹스(webcam sex), 전화 섹스, 음란 컴퓨터 게임 등으로 포르노물을 나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포르노를 소비자의 1/3은 여성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모든 여성의 42 퍼센트가 한달에 적어도 한 번 포르노 웹사이트를 보고, 일 천 만 여성이 규칙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음란물은 일상적이 되었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음란물을 보는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와서 부모와 보호자들이 더 이상 어린이들을 포르노물에서 보호할 수 없다. 수십년 전부터 음란물은 억압(suppression)에서 압박(obsession)으로 변했다. 50년전에는 암술 키스는 스크린에서만 보여졌으나, 오늘날 우리들은 성적으로 시정자들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닌 성행위의 영상으로 폭격을 맞고 있다. 이러한 포르노물 범람이 모든 영화관에서 공적으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도착(倒錯, perversion)은 오늘날 소동 고모라처럼 현대인의 매일 행위가 되고 있다. 음란물이 모든 사회, 모든 계층, 직업, 모든 연령층을 하고 흠뻑 적시고 있다.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우리 한국사회는 이러한 미국사회의 포르노물 홍수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늘날 인터넷 취급에 기반한 청소년들은 무선(無線)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접근되는 너무나 낮뜨거운 포르노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도착된 성 포르노의 폭격을 받고 있다.

2016년 6월 10일 독일 튀빙엔대 은퇴교수인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페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가 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을 하였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는 제목 강연에서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그의 강연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사상적으로 비판한 점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운동을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적 관점에서 보다 깊이 조명해 주었다.(Peter Beyerhaus, 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 2016년 6월 10일 「기독교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바이어하우스에 의하면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더불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제3의 세계적인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혁명이었고, 볼셰비키 혁명이 사회적 경제체제에 대한 혁명이었다면, 성 차별 철폐운동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性)의 질서, 결혼,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문화인류학적 혁명(cultural anthropological revolution)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인간에게 두 가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근본적인 창조질서로서 주신 하나님 창조주의 법을 부정하는 반신론적이며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주의(Genderismus, genderism)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사탄적인 원천을 지니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의 유럽의 계몽주의가 세계 문명에 가져온 고유한 중심개념인 자유 개념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진리와 책임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자유”의 개념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개념으로 왜곡된 “자유”의 이름으로 책임과 의무를 파괴하거나, 역기능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동성애가 법으로 합법화된 일부 사회에서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양성애(bisexuality)를 거부하는 이성애(異性愛, heterosexuality)자들은 심지어 사회나 언론으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에 차별한다’는 “호모포비

아”(homophobia, 동성애 혐오자)로 지탄 받거나, 정신 이상자로 취급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IV.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

1.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

1) 21세기의 세계사적 혁명: 프랑스혁명, 볼셰비키 혁명 이후 인류학적 혁명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혁명 프로그램이다. 바이어 하우스가 지정한 바같이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두 번에 걸쳐 선행된 거대한 혁명들 즉, 정치적 인 신분제를 전복한 프랑스 대혁명(1789)과 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볼셰비키 혁명(1917) 이후, 1968년에 일어난 세 번째 세계사적인 문화인류학적 혁명인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주권에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Genderismus)는 무신론적이며 반신론적일 뿐 아니라 교황 프란치스코가 강조했듯이, 사탄적인 근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세계관을 파괴하고 있다. 말하자면 역사와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문화의 가치판단의 기반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인류문화학적인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성질서로 인류사회를 독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 추기경단 전체 모임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비진리성과 그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류학적 혁명”을 경고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은 인간 자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인되는 그 곳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서구 모더니즘의 업적이 라 할 수 있는 자유, 양심, 인권,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기초는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라고 분석한 바 있다. 자유와 연대적 공존, 자율적 삶의 영위와 해방, 개인적 양심도덕,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한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라고 하버마스는 분석했다.(J. Habermas, “Ein Gespräch uber Gott u, die Welt,” in: ders., Zeit der Ubergänge (Frankfurt: Suhrkamp Verlag, 2001), 174f.)프랑크푸르트학과 출신인 비판사회학자 하버마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모더니즘이 가져온 정의, 사랑, 평등의 보편주의의 가치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유래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인정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2) 전통적인 사회관습의 해체

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 주장하는 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성’의 절대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 외에도 다양한 성들이 있음과 모든 성적 성향들(동성애, 양성애, 혼합성애, 이성애, 트랜스젠더 등)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 고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 각자가 자기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성적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의 한계성을 거부하는 인간 자율성의 주장이다. 인간의 성적 제한성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피조적 제한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인간의 천부적 자연성에 저항하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동시에 옛부터 전승된 덕성, 도덕 그리고 정절(貞節)과 같은 숭고한 가치 개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 내용들(전통 거부, 해방, 자유, 쾌락, 난잡 등)로 포스트모던 문화를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개념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sex-equality)과 무차별(non-discrimination)이라는 것발 아래 전통적인 일부일체제(monogamy)를 무너뜨리고 쾌락주의(hedonism)와 성적 난잡(sexual promiscuity)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이성애(異性愛)(heterosexuality)자들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이성애자들이 벌금내지 형을 살도록 역차별을 시도하며 동성애 독재를 성 정치로 펼치고 있다.

3) 무규범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앉아 있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불법한 자”(anthroopos tees anomias)를 보았다.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도래할 적그리스도를 미리 주목하고 있었다.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운동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양성 문화를 제거하고 이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라는 동성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성문화 혁명운동이다. 이 운동은 20세기 초종반기에 있었던, 이전의 다른 현대적 이데올로기 운동들 즉,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주의, 스탈린주의, 파시즘, 나치주의와 군국주의 등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그리고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에 의해 창설된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주고 있다. 성 차별 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이 갖는 적그리스도의 길이란 전통적인 규범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가치와 규범의 혼돈과 혼란을 초래하는 무규범(Anomie)의 상태를 말한다.(계속)

당신과 함께 있는 철학자와 함께 하는 아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겸손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입은, 낡은 코트를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스승이 되고, 오래 간직하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치기 아티스트 이요제

출판사: 알리온스 | 그림: 베너 매달리움 | 주필: 이요제 | 16쪽 | 15,500원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는 구매 가능해요. 도서 번호: 028-7058-7058